

“어린이들에 5·18 역사, 진실성 알리고 싶었죠”

정소영 작가 장편 동화 발간 5·18 모티브 ‘천년의 아이와...’ 전통설화 작품으로 구성 계획 내 이야기 담긴 자전적 소설 쓸터

작가는 5·18 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하되 역사적 사실을 우의화해 판타지로 구성했다. 주인공은 5·18 때 도청 앞으로 시위 구경을 가서 죽은 12살 어린이 건영이다. 무덤 속 건영이 ‘천년의 아이’로 환생한다는 내용이다.



정소영 작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당시 저는 충남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초임발령을 받아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공주 읍소재지에 있는 교육대학을 다녔던 저는 민주주의나 정치에 대한 철학이 없었어요. 그러나 얼마 후 광주에 내려와 가족으로부터 5·18 이야기를 듣고 크게 놀랐죠.”

동화작가 정소영은 대학 재학시절, 그리고 이후 교직생활 중에 가졌던 5·18에 대한 부채감을 오랫동안 떨치지 못했다. 5·18 이후 어느 교회에서 물레 상영하는 광주민주화운동 영상 자료를 본 적이 있다. 그 영상을 보며 작가는 그것이 현재의 우리 삶에 어떤 물결을 이루어내고 있는지 생각하게 됐고, 많이 울었다.

이번에 정 작가가 5·18민주화운동을 다룬 장편 동화 ‘천년의 아이와 동물 병정’ (도담소리)을 펴냈다. 초등학교 교장으로 퇴직된 뒤, 작가가 작정하고 쓴 작품은 “어린이들에게 역사의 진실성을 바로 알게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자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역사적 사실을 통한 민주 시민의식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상이 어린이라는 아동문학의 장르적 특징이 있기 때문에 중심이 다치지 않는 방향으로 창작의 틀을 잡았어요.”

작가는 “어린이들에게 아픈 역사의 상처를 날 것으로 보여주기는 동심의 시선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가급적 시간여행을 매개로 판타지 세계를 보여주려고 했다”며 “작품은 정의와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작품은 주인공 건영이 누나 송희, 친구 수정이와 함께 금남로에 있는 장난감 가게에 꼬마병정인형을 사러가면서 펼쳐진다. 그러나 하필 가게 문이 닫혀 있어서 이들은 도청 앞 시위 현장에 가게 된다. 그 현장에서 발포가 있었고 건영은 총에 맞아 죽고 만다. 이후 건영의 아버지인 ‘도자기할아버지’는 금남로에서 도자기공방을 운영하게 된다. 건영의 아버지와 누나는 도자기로 만든 툰나 무배와 열두 띠 동물병정, 이팝나무 꽃을 망월동 건영의 무덤 상석 위에 올려놓고 시간여행을 떠난다.

작가는 이 동화를 쓰기 위해 자료 조사 차 몇 번 5·18 민주화 묘역을 찾았다. 묘역에 잠든 열사들을 떠올리며 “이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울컥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어떤 형태로든 이 땅의 우리는 그들의 희생

과 아픔과 열망과 사랑으로 이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었다.

정 작가는 41년 동안 초등학교에 근무하다 지난 2020년 8월에 교장으로 정년퇴임을 했다. 그때부터 5·18을 소재로 한 장편동화를 꼭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오랜만에 이곳 저곳 다니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구경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나름의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 틈틈이 글을 쓰고 싶다는 열망은 끝내지 못한 속제처럼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원래 그는 소설을 썼다. 동화는 초등학교에 근무했기 때문에 소재 발견이 쉬워서 가끔씩 쓰고는 했었다. 소설과 동화를 써서 선배작가에게 보여줬더니 무엇을 써도 무방하지만 어린이들을 상대하니 동화가 좋겠다는 조언을 해줬다고 한다. 이후 신춘문예에 몇 번 떨어지고 ‘아동문예’ 신인문학상으로 등단했다. 그리고 창작집 ‘달맞과 아기몽돌’로 아동문예문학상을 수상했다.

‘문정시절, 아니 습작을 어떻게 했냐는 물음에 작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동시와 동화를 습작했으며 그때 노트가 지금도 남아 있다”며 웃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매실’이라는 문집을 만들어 반 아이들과 돌려 읽기를 했습니다. 20대 때는 ‘해맥’이라는 동인활동을 했지요. 그리고 뒤늦게 문순태 작가가 지도하는 담양의 ‘생오지 소설창작반’에 들어가 소설 공부도 했습니다.”

작가는 동화는 “자신이 꿈꾸는 꿈의 세계”라고 정의했다. 동화는 유년시절의 꿈이며 환상이었다. 동화를 쓰면서 유년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행복한 시간여행을 하기 때문이다.

향후 계획은 어린이들에게 오래 읽힐 판타지 동화를 쓰고 싶다. 특히 우리나라 전통 설화를 전래 동화로 새롭게 구성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

“자전적 소설을 쓰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동안 써 놓은 소설을 묶어 책으로 내고도 싶고, 여력이 된다면 내 삶의 이야기를 장편소설로 형상화하고 싶어요.”

한편 정 작가는 2014년 ‘아기몽돌의 꿈’이 세종도서 문학나눔에 선정됐으며 지금까지 창작집 ‘천년의 아이’, ‘하얀 고래의 노래’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임방울국악교실 수강생 모집 판소리·한국무용 등 7개 과목

(사)임방울국악진흥회가 올해 임방울국악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

(사)임방울국악진흥회는 문화수도 광주의 예술역량을 축적하고, 국악인구 저변 확대와 국악을 몸소 체험하는 소통의 장으로 활용, 국악을 생활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국악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임방울국악교실은 빛고을아트스페이스 6층에 마련된 판소리시인체험에서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

강좌는 판소리, 고법, 민요, 한국무용, 장고, 가야금병창 등 7개 과목으로 구성되며, 각 강좌별로 20명 이상 모집한다. 주 1회 2시간 강좌가 이뤄지며, 수강료는 월 1만원이다.

강사로는 마미숙(판소리), 김찬미(민요), 조가원(장고), 최미애·한진희(무용), 이유리(가야금병창), 임영일(고법) 등이 나선다.

수강신청은 오는 2월 14일부터 가능하며, 방문 또는 전화(062-521-0731)로 접수하면 된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한-러 상호 문화 교류의 해’ 폐막 공연 온라인서 공개



‘문화로 잇는 미래’ 공연 모습.

한국과 러시아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며 열린 ‘2020-2021 한-러 상호 문화 교류의 해’ 행사의 폐막 공연이 온라인에서 공개됐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지난해 12월 비대면 형태로 열린 ‘문화로 잇는 미래’ 공연을 21일 ‘한-러 상호 문화교류의 해’ 공식 유튜브 계정과 네이버 TV 등을 통해 오픈했다.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와 국악 5인조 밴드 잠비나는 이번 공연에서 드라마 ‘모래시계’ 주제곡으로 익숙한 ‘백학’, 심수봉의 리메이크로 국내에 알려진 ‘백만송이 장미’ 등을 한국적으로 해석해 들려줬다.

소치 세계합창대회에서 2관왕을 수상한 그룹 하모니아즈는 ‘강은 넓다’, ‘홀로아리랑’ 등을 불렀고 러시아의 전설적 록커 빅토르 최의 히트곡을 리메이크한 것으로 잘 알려진 YB도 무대에 올랐다.

한국과 러시아 청년들이 K팝 곡에 맞춰 춤추는 무대도 마련됐다.

/연합뉴스

전남문화재단, 자체 기금 100억 추가 지원

1인 300만원 연 200명 혜택 시군별 특화 프로그램 활성화

올해 전남 지역 예술인에 대한 창작지원이 대폭 늘어나고 시·군별 특화 문화 프로그램이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전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선출·이하 재단)은 지속되는 코로나 19로 위협받고 있는 지역문화예술생태계 회복을 위해 기존 정기공모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재단이 자체 운영하고 있는 문예진흥기금(이하 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그동안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200억 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해 왔는데, 150억 원에 머물던 기금 조성 사업은 지난해 전남도의 50억 원 특별출연으로 목표를 달성했고, 이 기금은 앞으로 5년간 지역 예술인 창작육성 준비금, 시·군별 특화 문화콘텐츠 등 5개 사업에 100억 규모

로 지원될 예정이다.

재단은 먼저 지역 예술인 창작육성을 위해 준비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매년 지역 예술인들은 정기공모를 통해 창작활동 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신청자 중 절반 가까운 예술인들은 공모에 탈락되는 상황으로 이번 추가 지원으로 1인당 300만원 이내에서 매년 2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재단은 또 시·군별로 특화된 문화 지원해 예술작품 설치, 창작브랜드 공연, 소규모 마을축제 개최 등 지역마다 독특한 문화브랜드를 육성할 수 있게 도울 예정이며, 문화재생시설이나 경관조성이 완료된 공간 등 기존의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청년 및 지역 예술인들이 기존 공간을 살리면서 활동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전남도교육청과 협력해 도내 작은학교, 원도심 학교, 섬 지역 학교가 운영하는 문화



전남문화재단이 지난해 진행한 ‘청년 예술가 소통 간담회 마음톡톡’.

예술 프로그램에도 도움을 줄 예정이며, 소외 예술인 창작 및 네트워크 지원을 통해 도내 원로, 장애인, 다문화 예술인 등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문의 061-280-5811.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Nim e Bsong Solar Energy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